

다시 보는 케인스의 실업이론

빈 재 익*

I.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고용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있어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시경제적 환경 때문이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하면,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두 가지 인간 본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 본성과 보다 다양한 것을 누리기 위해 각자의 산물을 교환하려는 교환 본성이다.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의 노동하려는 본성들을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인 고용문제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학에서도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우리 경제가 겪은 외환위기가 계기가 되었지만, 현재 고용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6년판 OECD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7%이다. OECD 평균 실업률이 6.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우나 자영업자들이 총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음식, 운수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경제활동인구와 자영업자들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 3.2%에 불과하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jipins@cerik.re.kr).

15~19세와 20~29세의 연령계층에서는 실업률이 각각 8.5%와 7.2%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책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동자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유형이다. 다음은, 임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유형이 있다. 끝으로, 산업 고도화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량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의 이러한 고용흡수력 축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증대를 유인하는 유형이 있다. 케인스는 실업대책으로 마지막 유형, 즉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지지했을 것이다. 실업에 대한 케인스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자.

II. 실업에 대한 케인스의 인식

실업문제에 대한, 케인스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실업이 존재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면, 노동시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화폐시장이나 상품시장 등 다른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실업은 경제의 여타 분야에서 균형상태가 유지되는 것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은 임금의 경직성 등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자율과 투자함수가 비탄력적이어서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업에 대한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요소는 노동시장에서 균형 고용량과 임금의 결정은, 다른 상품시장에서처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고용량과 임금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사후적으로 실업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노동의 수요곡선은 생산 과정을 감독통제하는 고용주가 형성하는데,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임금과 동일하도록 하는 고용량과 임금의 관계식이다. 반면,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자들이 임금수준에 주어졌을 때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여가 사이에서 하는 선택에 의해 도출된다.

노동의 공급곡선이 고용량과 임금수준의 결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어느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처럼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케인스의 표현에 의하

면, 고용주들은 고용비용과 고용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같도록 고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노동과 임금이 교환되는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동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공급곡선에게는 실업률 측정 외에는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고용량과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케인스는 화폐임금을 외생변수로서 노동시장에 도입한다. 즉, 화폐임금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는 분석되지 않는 임금협상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케인스의 실업이론 요소 중에서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실업의 원인과 관련 있다. 첫 번째 요소를 언급하면서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실업의 원인을 찾았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고자 한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을 투자의 부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투자의 부진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이자율이 화폐량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이자율 수준이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화폐량이 변화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적정 이자율 수준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이자율 하락이 바로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는 고용주가 결정하는데, 투자 결정은 이자율보다는 투자의 결과로 생산된 재화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 등 고용주가 형성하는 장기 전망에 보다 더 의존한다. 이자율은 투자의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라고 한다면,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보다는 수익 측면에 대한 고려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Ⅲ.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위에서 케인스의 실업이론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았다. 케인스의 실업은 결국 고용주가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투자의 부족과 그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경제 주체들이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이 너무 높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투기적인 화폐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 목표로 했던 이자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도 실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케인스의 이론을 인정한다면, 실업에 대한 대책은 취업능력 제고 혹은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적정 이자율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여건을 만든 통화 당국의 정책기조 변화나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하는 고용주들의 자세 변화, 기업가 정신 혹은 동물적 본성의 고무 장려가 보다 유효한 실업대책이 될 것이다. **KLI**